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30 코로넬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아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 민주연합>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별별가족	4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황홀한 이웃>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거꾸로 교실의 마법 1000개의 교실 3편(재) 55 바트발 고운말	1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바타민	30 안코리 MBC 다큐스페셜 갑골스토프로젝트48시간
2	00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밤(재)	30 독?독! 키즈클럽	15 세상발견 유레카 55 날씨와 생활
3	00 직언직설	00 명견만리 <청년이 사라진다>(재) 55 튼튼생활채널	45 후투스(재)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재취업 프로젝트 <나, 출근합니다>(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공	00 로봇 트레이너 30 우리가 탐구 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남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물결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극장<단팹> 55 미녀와 야수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견만리 <청년이 사라진다>2편 55 스포츠	00 수목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	0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00 KBS 뉴스라인 40 KBS 특집 외교혁명 1편	10 해피 투게더	15 천생연분 리턴즈
12	40 내조의 여왕(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림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4:30 마탈도사	19:00 트리푸트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끼 탐험대	19:50 청춘! 세대의 도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07:15 책과 평화(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영 유치원(재)	<극한의 땅 그린란드>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16:20 원더볼즈	21:30 한국기행
08:00 덩동영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30 우당탕탕 아이쿠	<산 너머 해남, 감진에는>
08:20 로보가 폴리(재)	13:05 역사채널e	16:45 책과 땅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10 육아를 부탁해(재)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2:45 다문화 교부연전
08:50 코코몽 3	13:40 사이먼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9:05 원더볼즈(재)	13:50 띠개비 루	17:30 두다다공	24:05 역사채널e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4:00 마야의 모험	17:45 로보가 폴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II-일파개념>	12:10 올림픽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I>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40 " <세계지리>	19:20 " <지구과학I>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역>	20:50 2016 수능특강 <영역b>
09:10 " <이온주의 수학II>	21:50 " <수학I b>
10:10 2016 수능특강 <영역b>	22:30 박용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
11:00 " <수학I b>	23:10 2016 수능특강 <국어a>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중간학업 성취도평가 대비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과학 3-1>
08:00 행정사 시험대비강좌	<과학 4-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5:50 " <과학 5-1>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6:20 " <과학 6-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09:50 " <영어>	18:00 TV 중학 <국어⑤⑥>
10:30 " <도덕>	18:40 " <영역3>
11:10 "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1:50 " <영어2>	20:00 EBS 인문학 특강
12:30 EBS 특강	20:50 EBS 기특리츠
13:10 중학 중·기시험 대비문제풀이	21:40 EBS UCC 공모 나파디
13:50 " <사회1-1>	22:0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풀이 <역사 2-1>
14:30 " <역사1-1>	22:40 " <과학3-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9일(음 2월 21일 乙卯)

子	48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알라. 60년생 임시방 편지라하면 무의미하다. 72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84년생 고배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1, 64
丑	49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61년생 이 완시켰을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73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살펴 볼 일이다. 85년생 현상이 보여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3, 19
寅	38년생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50년생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62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74년생 영향력 하에 놓인다. 86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36, 44
卯	39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임해도 된다. 51년생 허점이 보인다. 63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75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7년생 허나를 소비하면 돌이 채워지리라. 행운의 숫자 : 52, 60
辰	40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52년생 장점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크다. 64년생 주저하다가는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76년생 상당한 재선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8, 92
巳	41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53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본다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65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이다. 행운의 숫자 : 86, 03

午	42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4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66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78년생 행운이 코앞에 당도하였으니 어서 문을 열고 맞이하라. 행운의 숫자 : 78, 96
未	43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55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67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79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85
申	44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56년생 옳다고 확신한다면 밀어붙여도 된다. 68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마음에 걸리던 내버려 뒀다. 행운의 숫자 : 73, 10
酉	45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면모를 접하게 되리라. 57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다. 69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81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8, 34
戌	46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58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70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82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35, 27
亥	47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71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이 인연이 짙다. 83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안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을 봄, 공포가 당신을 노린다

16일 '검은손' 이어 '위자'·'팔로우' 등 잇따라 개봉

보통 공포 영화는 한여름 극장가에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객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며 더위를 날려주는데 공포 영화가 제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그런 공식이 슬슬 깨지고 있다. 블랙버스터 영화가 장악하는 한여름 성수기를 피해 틈새를 노리기 시작한 것.

올해는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포영화가 예년보다 한층 더 서둘러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다. 이번 달에 개봉하는 공포 영화만 무려 4편이다.

먼저 한국 영화 중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공포 영화는 오는 16일 개봉하는 한고은·김성수 주연의 '검은손'(감독 박재식)이다. 영화는 의문의 사고로 오른손이 절단된 '유경'(한고은)과 유경의 연인이자 손 접합수술을 집도한 '정우'(김성수)에게 벌어지는 공포를 그린다.

원래는 줄 알았던 수술 이후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과 알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를 담은 '심령 메디컬 호러' 영화다.

한고은은 이 영화로 데뷔 20년 만에 처음 공포 영화에 도전한다.

외화도 잇달아 개봉한다. 올해 첫 공포 영화인 '팔로우'(감독 데이비드 로버트 밋첼)는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공포의 존재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는 저주를 그린 영화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제이'(마이카 먼로)가 그날 이후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저주에 시달리며 극한의 공포에 시달리는 내용을 담았다.

누군가에게 저주를 넘겨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행운의 편지'의 19금 호러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팔로우'는 오는 2일 개봉한다.

'검은손'과 함께 오는 16일 개봉하는 '위자'(감독 스티븐 화이트)는 죽은 친구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위자 게임'을 시작한 다섯 친구들의 얘기를 그린 영화다.

일종의 '서양판 분신사바'인 위자 게임은 14세기 프랑스 집시들에 의해 시작돼 악령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게임으로 알려지며 한때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영화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게임의 룰을 어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려는 주인공이 오래전 한 집안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비밀을 꺼내게 되면서 미스터리한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한다.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제작을 맡았다.

세계 5대 공포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우먼 인 블랙 : 죽음의 전사'(감독 톰 허퍼)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의 어린이보호소 보육교사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저택으로 피난을 오면서 시작되는 저주를 그렸다.

역대 영국 공포영화 흥행 1위인 '우먼 인 블랙'(2012)의 후속편으로, 이달 중 개봉할 예정이다.

'위자'의 흥보를 맡은 봉봉미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4월에 공포 영화가 몰린 것은 우연이긴 하지만 대중이 공포영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실제로 최근 흥행한 공포 영화도 계절과 상관없이 영화의 완성도나 화제성으로 흥행했다"고 분석했다.

'킹스맨' 261만명 ... 국내 관객몰이 1위

지난달 관객수 전년 대비 8.7% 감소

지난달 국내 극장 관객 수는 1132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관객 수는 모두 1천132만명, 극장 매출액은 모두 897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3월보다 각각 8.7%, 6.1% 감소한 것이다.

작년 3월에는 1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5편이었지만, 올해는 3편에 그치면서 관객 수와 매출액이 모두 줄었다. 지난달 관객 점유율은 한국 영화가 34.4%, 외국 영화가 65.6%였다.

지난달 한국 영화의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은 각각 390만명, 305억원으로 작년 3월보다 65만명, 63억원 증가했다.

반면 외국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은 각각 742만 명, 592억 원으로 173만 명, 121억 원 감소했다.

2월 개봉작인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사진)가 지난달에도 가장 많은 관객(261만명)을 모았으며 한국영화로는 지난달 25일 개봉작인 '스물'이 135만명을 동원해 한국영화로는 최다 관객 수를 기록했다.

또한 다양성 영화인 '위플래쉬'가 127만명을 모아 관객 수 3위였다. 지난달 흥행 상위 10위에는 한국영화 5편과 미국영화 4편, 영국영화 1편이 들었다.

배급사별로는 '킹스맨'의 이십세기픽스코리아(이하 관객 점유율 25.0%), '스물'의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17.1%), '위플래쉬'의 쇼박스(13.9%) 순으로 많은 관객을 모았다.

지누션, 돌아오다

'토토가' 출연 후 컴백 요청 쇄도 ... 15일 새 음반

힙합듀오 지누션(지누, 셴)이 11년의 공백을 깨고 오는 15일 새 싱글로 컴백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오전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누션의 싱글 음반 티저 이미지와 함께 발매일을 공개했다.

1997년 '가솔린'과 '말해줘'가 담긴 1집으로 데뷔한 지누션은 이후 '태권V', '에이-오(A-Yo)', '전화번호'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으나 2004년 4집 '노라보세'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 사이 지누는 YG의 후배 가수들을 위해 일했고, 셴은 사회 기부 활동에 힘썼다. 이들은 올해 초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에 출연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컴백 요청을 받아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YG 측은 "지누션은 과거 음악과 패션 등 가요계에 통합 문화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며 "11년 만에 어떤 음악과 비주얼로 돌아올지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객 수 기록했다.

또한 다양성 영화인 '위플래쉬'가 127만명을 모아 관객 수 3위였다.

지난달 흥행 상위 10위에는 한국영화 5편과 미국영화 4편, 영국영화 1편이 들었다.

배급사별로는 '킹스맨'의 이십세기픽스코리아(이하 관객 점유율 25.0%), '스물'의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17.1%), '위플래쉬'의 쇼박스(13.9%) 순으로 많은 관객을 모았다.

